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 날은 유난히 길이 많이 막혔다.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J는 마음이 타들어갔다.

이유리 주말 오후라 해도 20분이면 가고도 남는 길이고 평소보다 심 여분이나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무슨 이유인지 막역 방향

J가 옆에서 불뚱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속이 타들어 가는지 '왜 이렇게 막히지?'를 연발했다.

"저쪽에서 유턴하면 되지?" "응" 친정엄마를 마중나가거나 배웅하는 일은 늘 J가 해 왔던 터라 역 근처 지리는 훤히 보았다.

"어? 유턴 안 되잖아." "이상하다. 몇 달 전엔 분명히 됐는데... 어떡하지?"

유턴이 안 되면 막히는 이 길로 몇 백 미터를 더 가야했다. J가 울상을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는 찰나,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확 돌린다.



차는 순식간에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 불법 유턴을 한 것이다. 거의 8차선에 육박하는 큰 도로에서, 그것도 반대편 차선의 신호가 막 들어온 찰나에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었다.

법다 소리를 질렀을 J였지만 그날은 남편의 신속한 대응에 그저 '어, 어'하며 놀랐을 뿐이다. 그 순간 회한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남편이 섹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왜 안하던 행동을 해” “당신의 일탈과 불법행위가 비디오보다 더 섹시해”

습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 안에서만 편안한 사람, 평범하게 살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아니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

내 남자가 섹시해 보일 때

스럽지 않았다. 내 남편에게도 일탈과 불법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저지를 정도의 용기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 묘한 흥분은 쉽게 가시지가 않아서, 그날 밤 J는 급기야 남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말았다. "갑자기 왜 이래? 장모님 아직 안 주무실지도 몰라."

"걱정 마. 피곤해서 일찍 주무실거야." "나 몰래 야한 비디오라도 봤어?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은 꽤 반기는 기색이었다. J는 속으로 '야한 비디오보다 더 섹시한 걸 봤지'하며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런 잠자리를 가졌다.

법률 유턴 이후 애정이 돈독해진 두 사람은 마치 신혼이 다시 찾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낯설 행각을 벌였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여성의 게시글이 축구계와 인터넷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로부터 낙태를 종용 당하고 자살 충동에 휩싸일 정도로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김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에 대표팀 수비수 황재원(27·포항 스틸러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미스코리아 김주연과 교제하던 중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됐고 황재원이 김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낙태 종용에 자살충동”... e세상 발칵

14일 오후에는 게시글이 게재된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글이 사실이면 선수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축구협회에 대해 마려운 충격을 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정무 감독은 대표팀 선수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황재원을 대표팀에서 제외시켰다.

만능엔터테이너 배우 김원희(사진)가 자신의 어릴적 도박이 있었다는 충격 고백을 해 화제다.

MBC 드라마넷 '삼색녀 토크쇼'에서 김원희는 "11살 때 슈퍼나 문방구에서 물건을 종종 슬쩍 했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공형진이 최근 개봉을 앞 둔 영화에서 11살의 장애우 역할을 맡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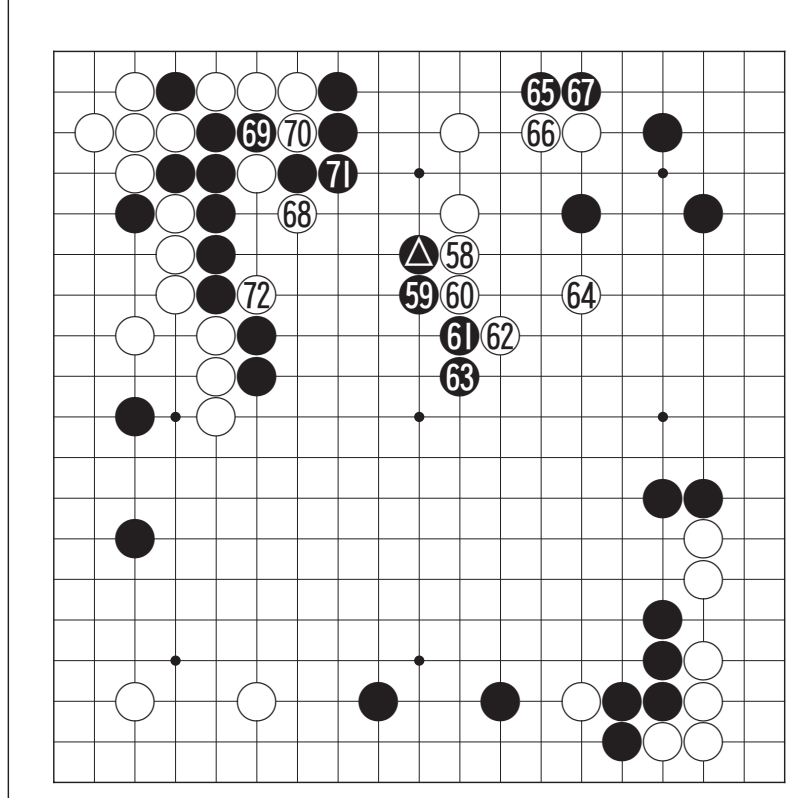
'광화문 연가', '옛사랑',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작곡가 이영훈씨가 14일 오전 3시 세상을 이별했다.

또 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눈물도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박정욱기자 jvpark@kwangju.co.kr



만능엔터테이너 배우 김원희(사진)가 자신의 어릴적 도박이 있었다는 충격 고백을 해 화제다.



광주 기우회 대항전

흑 ▲는 공격이라고 보다는 왼쪽 흑 돌에 대한 수비에 가까운 수였다. 그러나 상변에서 실리를 뺏긴 지금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할 때였으며 이 수로는 당연히 60에 모자를 씌워 백 돌을 호령해야 했다.

타이밍 놓친 공격 5보(58~72)

흑 ▲는 공격이라고 보다는 왼쪽 흑 돌에 대한 수비에 가까운 수였다. 그러나 상변에서 실리를 뺏긴 지금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할 때였으며 이 수로는 당연히 60에 모자를 씌워 백 돌을 호령해야 했다.

바둑소식

'얼짱' 이슬아 초단이 현역 최고 여성 프로기사인 박지은 9단을 잡았다. 이슬아는 14일 서울을 한국기원서 열린 제5회 전자랜드배 주작왕전 8강전에서 박지은을 상대로 85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굿모닝 잉글리쉬 <1097> I'm going to take off 저는 쉬어하겠습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1097> 寮(りょう)の生活(せいかつ)はどうですか. 기숙사 생활은 어때요?

니하오 쑹구위 <74> 你有兄弟姐妹吗? 당신은 형제가 있습니까?

한자 이야기 <684> 風磬(풍경) 바람 풍, 경쇠 경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월 9일 乙酉) 子 3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諸事가 풀려간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潤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